공립교사 진학 노하우 쌓일만 하면 강제 전근

긴급점검

광주고교 학력격차 公低私高 대책없나

公, 4년마다 학교 바꿔… 입시부담에 고3 담임 기피

私, 학교 전통 세우려 학습 분위기·생활 지도 심혈

중 진학·생활지도 온도차

#. 지난 2월 광주의 공립 A고교를 졸업한 B씨. 그는 입학 당시 대표 선서를 할 정도로 성적이 좋았다. 학교에서도 "잘 가르쳐 S대를 보내겠다"고 약속할 정도였다. 하지만 3년 뒤, 그가 받은 수능 성적표는 3등급으로 가까스로 지방 국립대에 진학했다. 목표대학 진학에 실패한 그는 학교의 진학지도 시스템 부재와 느슨한 학습 분위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진학지도 시스템 부재=입시 전문가들은 광주지역 공·사립간 학력격차 원인으로 가장 먼저 '고교 근속 상한 연한제'를 꼽았다.

이는 공립고교 교사는 한 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근무 제한제도다. 4년이 지나면 다른 고교로 전근하든지, 중학교로 가야 한다. 전국에서 광주에만 있는 제도로,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근무년수를 4년에서 5년으로 1년 늘렸다.

B씨는 이 제도가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3학년 담임 10명 중 6명이 경력이 채 3년이 안된 초임 발령 교사거나 새로 이 학교에 전입 온 교사였다고 한다. 고참 교사들이 3학년 담임을 기피하면서 이같은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B씨는 "진학지도 경험이 없는 담임이 어떻게 체계적인 지도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이 입시제도가 복잡한 상황에서 고교 3학년 진학지도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립은 교직 경력 대부분을 한 학교에서 진학지도를 하게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학지도의 전문성을 갖게 되고, 구성원간 긴밀한 상호작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공립은 중·고교간 강제 이동과 잦은 학교 변동으로 전문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입시 부담 탓에 중등교사들의 일반고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예전의 경우 대부분 중학교로 발령됐던 신규 교사들이 최근 들어 일반고로 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신규교사 176명 가운데 32%인 56명의 초임 발령지가 일반고였을 정도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신규 교사의 경우 경험을 쌓으라고 대부분 중학교로 발령했다"며 "하지만 최근 중학교에 결원이 많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로 보내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느슨한 학습 분위기=근무 환경과 학습 분위기에서도 차이가 난다.

사립 교사의 경우 평생 직장인 탓에 학교의 전통을 세우려는 의지가 강하고, 이로 인해 학생 생활지도를 보다 세밀하게 한다는 것이다. 반면, 공립 교사는 4년마다 강제로 학교를 옮기는 탓에 학교에 대한 애정보다는 자신의 교육철학에 따라 학생지도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사립은 어떻게 해서라도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도록 피해자와 가해자 간 조정을 유도하는 반면, 공립은 조정 유도보다는 손쉽게 심의위 결과에 따른다는 것이다. 학생을 대하는 공·사립의 차이다. 학습 열기도 사립은 뜨겁다. 일부 사립의 경우 밤 10시 이후 금지된 야간자율학습을 커튼을 치고서라도 강행하고 있을 정도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대 생명과학부 개편 해당 교수·학생 반발

지난해 극심한 학내갈등을 낳았던 전남대학교 생명과학기술학부 조직 개편과 관련, 해당 교수와 학생들이 단식과 촛불시위를 벌이며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법원이 낸 조정 권고안을 놓고 교수와 학생측은 받아들일 것을, 학교 측은 불복 입장을 밝히면서 2심 판결을 앞두고 양측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8일 전남대학교 등에 따르면 생명과학기술학부 소속이었던 소재목 교수가 본관 로비에서 5일째 1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소 교수는 자연대와 공대로 나눠진 생명과학기술학부의 정원을 다시 되살릴 것을 학교 측에 요구하고 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교과부 승인까지 받았고 1심에서도 승소했는데 이를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나원참 〈8791〉 김종두

광주 초교 학폭위, 가해학생 처벌 번복 논란

재심 권한 없는데도 무혐의 결정… 피해 학생측 반발

광주의 한 초등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권한이 없는데도 학교폭력 재심의를 열고 가해학생 처벌결정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광주 모 초교 등에 따르면 이 학교 학폭위는 지난해 12월 31일 가해학생 A군에 대한 학교폭력 재심의를 열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학폭위는 지난해 11월 9일 회의에서 A군에게 서면사과 및 교내봉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두 달도 채 안돼 원심 결정을 정반대로 뒤엎은 것으로, 학교 결정대로라면 피해 학생은 있는데 가해 학생은 사라진 셈이다. 가해 학생인 A군의 어머니는 학폭위 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폭위엔 재심 권한이 없다.

다만, 학폭위가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내린 경우 가해학생 또는 학부모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군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학교가 권한이 없는데도, 재심을 열고 가해 학생을 무혐의 처분하는 '혜택'을 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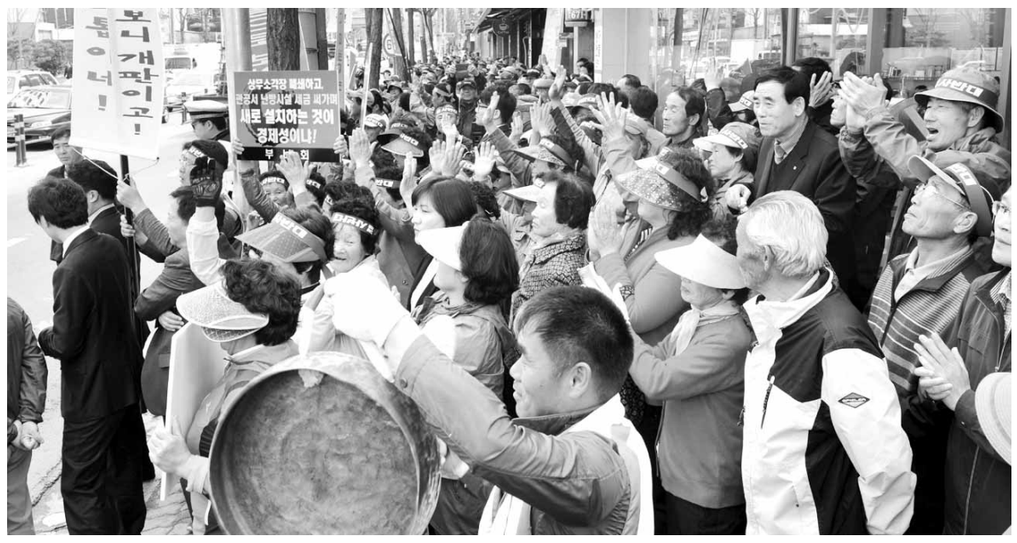
학폭위 측은 "첫 심의에서 A군에게 무혐의 조치를 내렸어야 했는데, 잘못된 판단으로 서면사과 및 교내봉사명령을 내렸고 이를 바로잡고자 재심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폭위 측은 피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회의소집 및 결과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규정상 학폭위 회의 소집 또는 결과는 해당 학부모 등에게 공지하도록 돼 있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지난 2월 말 학교폭력 관련, 서류를 정리하던 중 학폭위가 (나에게) 통보도 없이 제멋대로 회의를 소집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을 알게 됐다"며 "재심 권한이 없는 학폭위가 내린 재심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이 학교 학폭위원장인 B교감은 "A군의 첫 징계 조치와 관련, 당시 가·피해학생 모두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아도 징계조치를 내려도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두 학생 모두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재심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가연성폐기물연료화 사업 안돼" 광주시 남구 신청사 개청식이 진행된 8일 오후 2시 신청사 건너편 옛 국제호텔 앞에서 양과·대촌동 주민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가연성폐기물연료화(RDF)사업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주민들은 'RDF 설치 사업의 전면 백지화'와 '시설원예단지가 밀집된 양과·대촌동 지역의 생존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집회는 40여분 가량 이어졌으며 구청 측과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헬스케어연구소 현장 불

8일 오후 5시께 화순군 화순읍 내평리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헬스케어연구소 건물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현장에서 작업하던 안모(68)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한모(45)씨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지하층 일부를 태우고 30여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지하층 전기배관·설비 작업 중 용접 불꽃이 옮겨 붙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작업 인부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대법 "이홍하씨 보석 청구 기각 정당"

순천지청 재구속 절차 착수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가 광주고법의 보석 기각결정에 대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보석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없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법원에서 공식 통보를 받는대로 이씨에 대한 재구속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광양과 남원,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S건설 자금 106억원 등 총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심장혈관 확장 시술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했으며 광주고법은 지난달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이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남구 신청사 구내식당 왜 없냐"

주변 상인들 "우리도 먹고 살아야…"

광주시 남구청 직원들이 '직원 구내 식당'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남구공무원노동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신청사에 직원 식당이 없어 점심시간마다 값싼 주변식당을 찾느라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임대 사업자인 자산관리공사의 수익성만을 따진 결정에 직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신청사에 직원식당이 없는 이유는 최영호 청장의 결정에 따라 설계에 반영조차 안됐기 때문"이라며 구내 식당이 마련될 때까지 1인 시위를 비롯한 점심 안먹기 운동과 '도시락 데이'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경기 침체로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일단 공감하지만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지역민들도 많다. 남구가 청사를 이전하면서 주변 상권 활성화를 내걸었고, 내수침체 등으로 공공기관 주변 식당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들도 고려해 줄 수 없느냐는 것이다.

남구 관계자는 "지난 6월 '직원과의 대화' 때 식당이 입점하면 가격을 옛 구내식당 수준으로 맞추고, 그렇지 않으면 복지 포인트나 연가보상금을 통해 차액 보상을 약속했다"며 "직원식당 운영시 적자를 볼 게 뻔하고, 주변 상인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오히려 노조가 일방적인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

대변 보고 간 도둑, DNA 검사로 덜미

쌍나팔

○…'범행 현장에 대변을 누면 잡히지 않는다'는 속설을 실천했던 10대 4명이 경찰서행.

○…8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강모(17)군 등 4명은 지난 1월 2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양모(38)씨의 승용차에서 금품을 털려다 훔칠 게 없어 대변만 보고 달아났다는 것.

○…강군은 승용차 안에 돈이 될만한 물품이 없는데다 검거에 대한 걱정이 앞서자 대변을 보고 달아났는데, 경찰은 대변 속에 포함된 혈흔에 대한 DNA 분석을 거쳐 강군의 신원을 확인한 뒤 전원 입건.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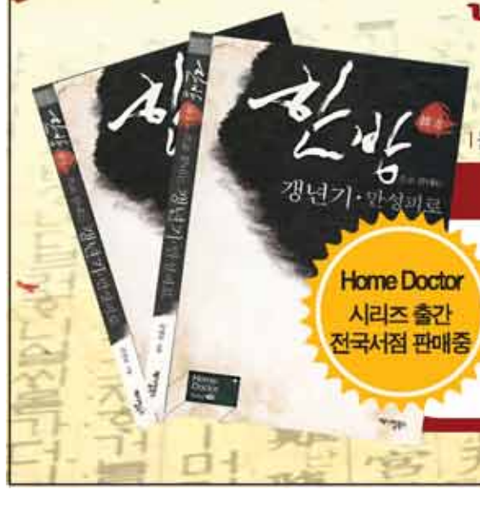
눈이 피로하면 온 몸이 피로하다!

눈은 간장의 기능과 연관이 있다. 눈의 과로한 환경과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고뇌와 분노로 말미암아 간 기능이 올결되어 화(火)로 변하면 그 화기가 인체 상부 즉 머리와 눈으로 뻗쳐 눈이 침침하고 아득할 정도로 피로해진다. 이러한 증상을 안구건조라 한다.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며 눈을 잘 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인다라한의원 www.indara.co.kr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광주은행 6층(신세계백화점사거리)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106-중-9819호 [광고] 광주점 062-368-5075

현대인 누구나가 겪고있는 스트레스성 질환의 해결법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해결책을 찾다!



| 눈이 건조하고 피곤한 눈피로의 해결법 | 스트레스와 과로에서 오는 만성피로 증상과 해결법

눈의 피로의 다양한 증상들

- 책이나 가까운 물체를 잠시만 바라봐도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거워진다
- 눈이 몹시 깔깔하고 눈알이 아프다
- 오후만 되면 눈이 팽팽해지고 눈앞이 뿌예진다
- 다른사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어렵다
- 마음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낸다
- 입이 쓰거나 마르고 가끔 옆구리가 결리거나 아프다

정서코칭 및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수강생 모집

<강사> 김현진 교수, 하춘희 슈페바이저, 정승안 국장, 조영미 교육위원

■ 교육일시: 2단계 2013년 4월 13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3단계 2013년 4월 20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4단계 보수교육 2년간 4회 이수 – 1회: 5월 10일(금) 오후 6시 ~ 10시
■ 교육장소: 광신대학교 진리관
■ 제출서류: 입회원서 www.ayce.co.kr 첨부자료 다운 kcfce@hanmail.net 접수
문의 : 사)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062) 652-0675, 010) 8299-6237
■ 교 육 비: 25만원
입금계좌>> 농협 355-0012-1260-13 예금주: 사)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보수교육비 별도 1회당 5만원 및 자격 검증비 별도/정서코칭 2급 5만원, 학교폭력예방상담사 3만원)
■ 특 전: 또래정서코칭지도사 취득을 위한 임상시간에 포함됨
또래정서코칭지도사 과정 : 정서코칭필수 + 교육2회, 임상 후 자격이수
정서코칭 + 아동가족심리상담사 두 강좌 접수시 혜택: 교육비 40만원

◂정서코칭 정서지각능력이 향상되고 관계능력이 증가되어 자존감과 행복감이 높아지는 효과
◂학교폭력 청소년의 심리, 학교폭력 및 학교내 집단따돌림 현상, 관련법제 등을 이해

주관 |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복지 소로 36 www.kwangshin.ac.kr
AYCE www.ayce.co.kr (사)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여성가족부 지정 자격연수 전문기관
후원 | febc 광주극동방송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9-2 gj.febc.net

여성가족부 인정 2013-1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2013년 6월 17일(월)~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